

# 제주Utd 홈 3연전 '씩씩이'... 선두 수성

29일 FC안양과 경기 3-1 승리  
이동률 맹활약 멀티골 폭발  
승점 34점으로 2위와 2점차



지난 29일 안양전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는 제주 선수들.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이동률의 맹활약을 앞세워 FC안양을 격파하며 홈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제주는 지난 2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양과의 하나원큐 K리그2 2020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지난 부천전에서 프로 데뷔골을 터트린 이동률은 이날 멀티골까지 폭발시키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날 승리로 제주는 홈 3연전(안산-부천-안양)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특히 승점 34점을 확보하면서 제주는 같은날 경남에 3-2로 승리한 2위 수원FC와의 격차를 승점 2점으로 계속 유지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경기 시작과 함께 제주가 전체적인 라인을 올리며 불점유율을 주도하는 가운데 안양이 아코스티의 파괴력을 앞세워 호시탐탐 득점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팽팽한 0의 흐름은 쉽

리 깨지지 않았다. 유호수팅도 전반 34분만에 나왔다. 안양은 주현우가 기습적인 원발 슈팅을 때렸지만 오승훈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다.

실점 위기를 넘긴 제주는 전반 42분 선제골 사냥에 성공했다. 주민규의 로빙 패스 출기를 따라 이동률이 순간적으로 안양의 수비라인을 뚫어낸 뒤 가볍게 골문 안으로 밀어넣

었다. 일격을 당한 안양은 후반전을 앞두고 구본혁을 빼고 맹성웅을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이후 공세의 수위를 높인 안양은 후반 11분 권용현이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터트렸다.

하지만 안양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1분 만에 제주의 득점이 터졌다. 김영욱의 침투 패스를 받은 이동률이 영리한 움직임으로 안양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력화시키며 멀티골을 뽑아냈다.

이어 경기 막판 주민규의 빼기골까지 터지면서 이날 경기는 제주의 승리로 돌아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배구여제' 김연경 국내 복귀전... 흥국생명 완승



서브하고 있는 김연경

프로배구 컵대회 개막전서  
현대건설 3-0 완파... 7득점

'배구 여제' 김연경이 합류한 흥국생명은 공격과 높이, 수비까지 완벽한 팀이었다.

흥국생명이 30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리는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 대회 여자부 현대건설과의 개막전(A조 1차전)에서 현대건설을 3-0(25-15 25-13 25-22)으로 완파했다.

키 192cm의 수비 능력까지 갖춘 세계 최정상급 레프트 김연경에, 국가대표 주전세터 이다영이 합류한 흥국생명은 경기 내내 현대건설을 압도했다.

김연경의 컵대회 출전은 10년 만이다. 2010년 9월 5일 프로배구 컵대회 결승전 이후 3647일 만에 한국 프로배구 공식 경기에 출전한 김연경

은 공격과 수비, 블로킹에서 모두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연경은 상대의 목격타 서브에 시달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공격은 후배 이재영(19점)에게 양보했다. 이날 김연경은 7점(공격 성공률 41.66%)을 올렸다. 실제 김연경의 존재감은 수치로 드러낼 수 없을 정도였다.

흥국생명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에게 위압감을 줬다.

흥국생명은 루시야 프레스코(194cm, 등록명 루시야), 김연경(192cm), 김세영(190cm)을 전위에 두고 1세트를 시작했다.

경기 초반, 높이로 상대 공격을 막겠다는 전략이었다. 0-0에서 5번의 공격을 시도한 끝에 루소가 블로킹벽을 뚫고 처음 득점했다.

흥국생명은 곧바로 김연경을 앞세워 반격했다. 0-1에서 김연경은 세터 이다영과 호흡을 맞춰 킥 오픈에 성공했다. 4-4에서는 이다영의 세트를 이재영이 킥 오픈으로 연결했다. '쌍둥이 자매'가 흥국생명에 올린 첫 득점이었다.

# LA레이커스·밀워키, PO 2회전 진출

NBA 동·서부 톱 시드

미국프로농구(NBA) 동·서부 콘퍼런스 톱 시드인 밀워키 벅스와 LA 레이커스가 나란히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다.

동부 콘퍼런스 1번 시드 밀워키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벤처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1라운드(7전 4승제) 올랜도 매직과 경기에서 118-104로 이겼다.

1차전 패배 이후 4연승을 거둔 밀워키는 이로써 마이애미 히트와 콘퍼런스 결승진출을 다투게 됐다.

동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는 정규리그 1위 밀워키와 5위 마이애미, 2위 토론토 랩터스와 3위 보스턴 셀틱스의 대결로 열리게 됐다.

원래 이날 경기는 이날 전인 28일 로 예정됐으나 밀워키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코트르 나서기를 거부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24일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사에서 열린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들에게 총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밀워키를 연고로 하는 벅스 선수단이 항의의 표시로 경기 출전을 거부한 것이다. 밀워키 선수단의 이런 행동은 당

일 예정됐던 NBA 플레이오프 세 경기를 모두 순연시켰고, 다른 종목으로도 번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테니스 등에서도 경기 보이콧 사태가 속출했다.

결국 NBA 사무국은 경기 출전을 거부한 밀워키에 불수페를 선언하는 대신 경기 일정을 이를 미뤘고, 이날 열린 5차전에서 밀워키는 혼자 28점, 17리바운드를 기록한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쿰보의 활약을 앞세워 4연승을 거뒀다.

서부 콘퍼런스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LA 레이커스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131-122로 제압하고 역시 1패 후 4연승으로 2라운드에 안착했다.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36점, 10어시스트, 10리바운드로 트리플더블을 달성하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43점을 퍼부어 '에이스' 데이민 밀러드가 빠진 포틀랜드를 따돌렸다.

서부 콘퍼런스에서는 LA 레이커스가 가장 먼저 2라운드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2승 2패에서 맞선 휴스턴 로키츠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경기에서는 주전 가드 러셀 웨스턴브룩이 4차전까지 걸렸었다가 이날 복귀한 휴스턴이 114-80으로 대승, 3승 2패로 앞서 나갔다.



데뷔 이래 8전 전승을 달성한 제주마 초시대.

사진-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제공

제주마 초시대 8전 전승  
상금 1억3500만원 기록

제주마 '초시대'가 출전하는 족족 우승을 휩쓸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은 지난 29일 제주마 초시대(3세·거)가 데뷔 이래 8전 전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마 최고 능력자들이 출

전한 4경주(1등급·핸디캡·1110m)에서 문현진 기수와 호흡을 맞춘 초시대는 경주 막판 100m를 남겨두고 폭발적인 뒷심을 전세를 역전하며 연승기록을 추가했다.

이날 연승기록으로 제주경마공원 대표 제주마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초시대는 지난해 6월 데뷔한 3세마 임에도 8전 전승에 총 수득상금 1억 3500만원을 기록하게 됐다. 송은범기자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Contains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오늘의 운세 31일. Includes a horoscope section with a date and a list of zodiac signs with corresponding advice.